

2014
AUTUMN
vol.09

차이를 인정하는, 사이를 찾아가는 문화

2014 지금,
여기

낯선아침

2014 지금, 여기

삶에 대한 애착을 더욱 가지고 관심이 가는 마음, 자의반 타의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한다는 책임감 속에, 이젠 더 이상 과거를 탓하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사이를 찾아가는 문화

2014 지금,
여기

낯선아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608-801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 051)745-7244(7262~7264)
FAX : 051)744-7708 www.bscf.or.kr

지금 여기, 내가 사는 우리집



동구 수정 1동 김갑울님의 방 안 화장실을 찍은 사진으로 본인이 평소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어두운 화장실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화질은 깨끗하지 않지만 화장실을 생각하는 공간으로 표현한 것이 재미있다.

CONTENTS

BUSAN CULTURAL FOUNDATION

2014 AUTUMN vol.09



표지설명

부산진구쪽방상담소 소속 난타동아리 '두드림' 팀이 10월 14일 가온아트홀에서 송승환 난타팀 공연 게스트로 당당하게 무대에 섰습니다.

들어가는 글

04 지금 여기에서 박우신

커버 스토리

06 아, 그날이 올까 김현수
10 인연 지금 여기에서 김갑울
12 동쪽에서 뜨는 해, 서쪽으로 지는 해 노정욱

낮선아침 작품. 하나

14 내 인생 내 지계에 지고 서상훈
15 세월앞에서 (가명)김동주

예술여행 수기

16 순천만 예술여행 김정술
18 함께하고 함께 밥먹는 게 봉사 황인웅

낮선아침 작품. 둘

21 가을엔 김원석

법률정보

22 신용회복에 관한 법률 정보 코너 첫 번째 개인파산 이상두

동아리 수기

24 세상밖으로 학생 전상석
26 난타 소리 울리는 지금 여기 이경선

연재만화

28 가을이 오면 예경수

낮선아침 징검다리

32 노숙인쉼터 · 교회가 이끌어준 인생 제2막 한수홍
34 과거로부터, 마음의 풍경으로 눈을 돌리다 김영광
36 김씨의 익숙한 하루 김OO
38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 편집부

낮선아침 정보

40 식사정보
42 응급잠자리 현황
44 2014 찾아가는 영화관
46 독자후기

제작리뷰, 광고

발행일 2014년 10월 31일 발행인 이문섭 편집기획 이민경
편집위원 장병윤 김기태 김현수 서상훈 박우신 이재안 이민아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051-745-7264
표지사진 김정식 내지삽화 예경수 편집·디자인 김수인
제작 효민디앤피 051-807-5100 www.hyomindnp.com

낮선아침은 아침햇살의 진정한 의미를 담아낸 말입니다.
깊든 일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경이롭게 공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감을 향한 끊임없는 모험이 있는 아침입니다. 조금은 낯선 듯,
아침을 더 새롭게 꿈꿀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여행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까지 주인에게 세 들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자학하거나 스스로에 대한 자학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삶에 대한 애착을 더욱 가지고 관심이 가는 마음, 자의반 타의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한다는 책임감 속에, 이젠 더 이상 과거를 탓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시 방을 옮기고 싶은 마음에 길거리 한 모퉁이에 무심히 서있는 무가치에 부동산 임대 코너를 훑어 보고 있는 중에 뜻하지 않게 한 면 구석에 「인문학 산책」이라는 지면이 조그맣게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읽게 되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푸르른 하늘을 본 적이 없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나톨이라는 프랑스 작가의 말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는 알 수 없는 충격을 받고 다시금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최근 사는 곳에서 마찰이 조금 생겼다고 방을 옮기려고 마음을 가졌던 것도 인간의 모든 가치는 무시하고 덮어버리고 오직 돈에만 렌즈를 갖다 대고 바라보는 세상에서 가진 것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만 환산하고 돈에 쫓겨 사는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남이 보기에는 비루한 삶일지는 몰라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까지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어려움을 버텨내고 살아왔는가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견뎌온 나를 위로하며 자축하며 당당하게 살아야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주눅 들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하고 보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1년 넘게 상담소 알코올 예방 교육에 주1회 참여하고 올해는 문화재단의 지원으로 기타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삶에 대한 애착을 누리고 있었지만, 최근에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생활의 이런 저런 이유로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흩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자학하거나 스스로에 대한 자학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삶에 대한 애착을 더욱 가지고 관심이 가는 마음, 자의반 타의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한다는 책임감 속에, 이젠 더 이상 과거를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서 있는 이유입니다. 나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 그동안 살아온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자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과의 비교, 민감한 반응에 내 기준이 없으니 남의 기준에 맞추고 다시 말해 가진 게 없다고 남의 시선만 보고 피하며 돈 없이 세 들어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마음까지 주인에게 세 들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갈등을 겪습니다. 돈이 없다고 항복할 수는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빈곤하다고, 진지하지 못하고 시시껄렁한 대화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없이 살아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 싸움을 하더라도 내 이야기는

그 강아지는 푸르른 하늘을 본 적이 없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생생하게 살아서 부족하지만 문화재단 편집위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빈민분들의 문화예술 감성을 키우는 더 좋은 잡지로 성장하고 있는 낮선아침이기에, 이것 저것 나열하기에 바쁜 일상 속이지만, 아무쪼록 문화소외자분들과 함께하는 과정으로 문화적 소양을 통한 주체성을 키우는 활동에 더욱 집중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낯설고 불편한 흐름으로 잡지의 내용이 구성되어 지는 것이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여기 2014년 10월의 부슬 부슬 내리는 가을 빗속의 어느 날, 이후로부터

낮선아침을 만나면서, 또 낮선아침의 지지를 받으면서 든 생각입니다. 항상 마음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는 마음의 수술이라는 것, 부당함에 대한 표현, 참다가 참다가 폭발하는 무엇이 아니라 참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는 삶이 곧 지금 여기의 길입니다.

르몽드지 인터넷판에 나온 한국의 기사를 보고 한 주민이 이야기를 하는군요. 우리나라의 진단에 대한 어두운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 더 해 일용직 인건비의 실제 책정비가 15만 원인데 개인별로 받는 실제 인건비는 7-8만 원입니다. 사회구조자체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착취로 만연해 있다고 다시금 생각합니다.

박우신 _ 시력이 좋지 않아 글을 읽는 것이 힘들지만 상담소의 '희망의인문학'과 '낮선아침' 활동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글을 읽고 쓰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아, 그날이 올까

벌써 겨울입니다. 지난 5년은 겨울처럼 시린 세월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잊고 더 희망찬 내일을 맞으려 담배와 소주병 대신 기타를 잡아봅니다. 내 가슴을 울리는 〈님은 먼 곳에〉. 멋들어지게 연주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성취감 넘어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 오롯이 피어나겠지만요…….

2014년 겨울의 문턱에 성큼 다가 왔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5년이란 시간 동안 몸이 녹는 고통을 무던히도 이기며 살아왔건만 수많은 낮과 밤을 얼마나 참고 견뎌야 그 날이 올까요? 빗 독촉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담배와 술 그리고 도박으로 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가정의 불화까지 발생하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집사람은 가출하고 딸자식은 지금까지 행방 불명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항상 건강과 행복하기를 바라는 딸아이에 대한 못난 아버지의 바람으로 꿈에라도 한번만 보면 좋으련만 5년의 시간 동안 한 번도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기억 속의 너의 모습 그대로 인지 보고 싶다 보고 싶어. 미치겠다.”고 수 백번 되뇌곤 합니다. 5년 동안 딸과 그리운 사람 때문에 흐르는 눈물의 무게가 나의 삶의 무게란 것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업에 완전히 실패한 후, 3억의 채무액만 남아 하루하루 빚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지하철 계단에 몸과 마음을 던지고 나니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나, 재산이 있나, 그렇다고 직장이 있나, 소중히 간직할 게 없으니 아까울 것도

없었습니다. 부산진역 무료급식소에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날짜 지난 신문지로 얼굴을 가리고 줄을 서서 아려오는 가슴을 안고 숟가락 들고 목이 메는 아픔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세상에 나만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뒤를 돌아보니 나는 그 동안 참 많은 시련을 잘 이겨 내어 온 것 같습니다.

부산진역 무료급식 이용하시는 형님 소개로 소망관(부산시 동구 고관로 46)에서 방황하던 저에게 3개월간 임시주거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해서 2011년 7월 사랑의 장기기증에 등록하였고, 그 해 12월 인체조직기증에도 등록하였습니다. 나의 눈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 되어 그리운 사람의 눈동자를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현재는 큰방 작은방 그리고 창문이 5개 있는 임대주택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으로 실천하시던 동구쪽방 상담소 희망나눔방을 이용하시는 형님들과 동생들 덕분에 열심히 생활하다보니 동구쪽방 상담소 희망나눔방과 부산문화재단의 추천으로 낮선아침 제작을 맡고 있는 디자인 회사의 면접에 통과하여 조건 없이 취업하기로 했습니다.

첫 출근이 2014년 9월 15일 오전 8시 30분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내 가슴에서 빠져나간 5년의 세월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습니다. “빛지고는 못 산다.”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가요?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할 빚을 지고도 채권자들은 그동안 노숙인으로 방황하고 있는 내 소문을 듣고 기다려 준 것입니다. 하지만 취업 소문을 듣고는 월급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통장으로 압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5년간 기다려준 것은 언제간 취업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다려주었던 것입니다.

막상 취업을 하려고 보니 회사 그리고 교회생활, 어디론가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부터 먼저 드는 건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이 일을 계기로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에도 바라던 취업은 저와 조금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면 성실하게 할 것임을 다짐해봅니다.

부끄럽지만 오십이 넘고부터 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생겼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과 하모니카연습, 동구쪽방상담소에서의 알코올교육과 영상동아리모임 등 수없이 흐르는 시간 앞에 마음속 눈물만 담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살지 않으면 정말 외로워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뒤늦은 장마가 여름의 끝을 알립니다. 나의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곳 동구쪽방상담소에서 부산문화재단 후원으로 기타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설명 할 수 없는 불안, 밤마다 찾아오는 우울증과 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의식으로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살아가는 터라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해 보고자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모임에 나가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선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용기만으로 될까하는 고민이 듭니다. 기타 코드 잡는 법은 고사하고 음악의 ‘음’자도 모르고 콩나물대가리도 볼 줄 모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터라 기타를 배우는게 마냥 힘들지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즐겁습니다.

막상 기타를 손에 들고 코드를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요즘은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타 코드 잡는 법과 노래 부르다가 옆집 사시는 분께 한마디 들었습니다. “잠 좀 자자. 너는 몇 신데 노래를 부르냐? 잘 부르면 말도 안하겠단.” 속된 말로 허공에 삽질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타 동아리를 하면서 한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님은 먼 곳에〉아, 이곡은 진짜 통기타로 전곡을 꼭 해내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마음에 울림이 있는 노래는 뭐니 뭐니 해도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 아니겠습니까? 아직 초보라 코드도 잘 못 잡고 손 모양도 엉망이지만 기타와 노래를 부르면 답답했던 마음이 많이 해소됩니다.

배신과 복수로 잡았던 담배와 소주병을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기타를 잡아봅니다. 이제 막 재미가 붙어 일주일에 두 번 땀 뻘뻘 흘리며 신나게 연습하고 오는 길, 기타를 매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내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미쳐가네, 주책도 저런 주책이 없다.”고 해도 그냥 웃어 넘깁니다. 사실, 웃는 게 진짜 웃는 것은 아니지만요. 가슴과 손으로 배우고 느끼는 게 많음을 세월이 흐르면 그 사람들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쯤 기타를 잘 칠 수 있을까하고 늘 갈망합니다. 수업 시작 전 미리 가서 기타 줄 튜닝과 코드 잡는 것이 늘 즐겁고 설렘니다. 기초도 모르고 시작한 저를 가르쳐 주시는 친절하고 세심한 선생님 덕에 하나씩 깨쳐가며 재미를 붙여가는 중입니다.

기타를 잡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부산문화재단과 장소를 제공 해주신 동구쪽방상담소 소장님 이하 사회복지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현수를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님은 먼 곳에

김추자

사랑한다고 말할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걸 그랬지
 망설이다가 가버린 사람
 마음 주고 눈물주고
 꿈도 주고 멀어져갔네님은 먼 곳에
 영원히 먼 곳에 망설이다가님은 먼 곳에

마음 주고 눈물주고
 꿈도 주고 멀어져갔네님은 먼 곳에
 영원히 먼 곳에 망설이다가
 님은 먼 곳에

김현수_ 삶의 의욕상실로 노숙하던 중,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자립하면서 현재는 매입 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봉사활동 및 적은 돈을 꾸준히 모아 더 나은 꿈을 이루고자하며, 최근 영상동아리 모임과 낮선아침 편집을 통하여 삶의 활기와 재충전으로 뭉쳐산다.

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연출하는가에 따라
희극이 될 수 있고
비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인연 지금 여기에서

내가 처음 상담소 문을 열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곳에 있는 것에 조금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상담소 방문하기 전) 나의 생활은 혼자 아니면 술을 같이 마실 친구 2-3명이 고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담소 직원분과의 상담을 통해 쪽방상담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어렵 꽃이나마 이해가 되었으며 그렇게 나도 쪽방 회원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쪽방상담소를 이용할 때 한 가지 이유는 샤워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급비로 난방을 한다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한 겨울을 난방 없이 오로지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겨울을 보냅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겨울에 환자들이 유난히 많다는 것, 제대로 된 식사나 잠자리가 없다 보니 술을 찾는 횟수가 늘어나는데, 이는 곧 바로 몸을 망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상담소를 이용한 지 2, 3주 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도 하게 되고 상담소에 머무는 시간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갈 데가 없었기도 했지만 방은 냉장고 그 자체였기에 상담소에 머무는 시간이 그나마 행복이고 위안이었습니다. 그렇게 2013년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또 하나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산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알코올 상담과정 교육에 자의 반 타의반 상담소의 권유로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한 것입니다. 사실 나는 음주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일단 술을 입에 대면 소위 술이 술을 먹을 때까지 마셨지요. 술자리의 80~90% 정도가 black out 이었습니다. 횟수는 작지만 마시면 갈 때까지 가는 것이 나의 술버릇입니다. 술로 인해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무수히 많았기에 가족들도 포기했고,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어머니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화창한 5월에 나와 영원히 이별하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다면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습니다.

알코올 모임에 나가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와 강사분들이 준비한 강의 내용, 사례, 알코올과 인간관계 등 한 때 외면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발 한발 무리하지 않고 '절주'부터 단계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기 전과 같이 음주를 하지 않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요한 한 가지 변화는 취미생활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자아자 영상동아리입니다. 쪽방상담소 이 선생님과 일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걸려있는 것을 직접 봤을 때,
“그래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을 들었고...



곱 분의 회원이 매 주1회씩 모임을 갖고 있는데, 초기에는 매주 참석하다가 싫증이 나 몇 번 모임에 불참했었습니다. 단순히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는 게 단조롭게 생각되어 의욕이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찍은 사진 몇 장이 물만골 지하철 역 전시관에 공식적인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걸려있는 것을 직접 봤을 때, 조금은 쑥스럽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것을 남들한테 보인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모임 시작할 때, 받은 책을 보면서 하나 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오면 지금보다 조금 성숙한 사진이 나오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 뒤에 오는 책임감은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내가 판단하고 내린 수많은 결정들이 모이고 쌓여서 모두 내 책임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연출하는가에 따라 희극이 될 수 있고 비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동구쪽방상담소를 안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제 삶에 많은 의미를 부여해준 쪽방상담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갑울_ 2013년 상담소를 동구쪽방상담소와 인연이 되어 영상동아리 활동과 사진전시에 참여하였으며 평소에 소설책을 즐겨 읽는다.



동쪽에서 뜨는 해, 서쪽으로 지는 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여러 가지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도 해의 본질이나 해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해는 아무 움직임 없이 그곳에 있는데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지구가 움직여 해를 달리 보게 되는 것이다.

해는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진다.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불변의 진리다. 우리는 이러한 해를 두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희망 혹은 새로움 등의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 서쪽으로 사라져 가는 해를 보며 저물어 어두워지는,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 등의 좋지 않은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여러 가지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도 해의 본질이나 해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해는 아무 움직임 없이 그곳에 있는데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지구가 움직여 해를 달리 보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가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또한 해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은 인간이기에 그 가치가 있고, 인간이기에

존엄한 존재이다. 이는 불변의 진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와, 서쪽으로 저무는 해에게 의미를 달리 하듯이 인간에게도 의미를 달리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신체적, 물질적, 환경적 차이로 인해 나와는 다른 인간, 심한 경우 틀린 인간으로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중 특히 노숙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보통 노숙인을 두고 서쪽으로 저물어 가고 있거나, 저물어 버린 이제는 어두운 곳을 갈 수 밖에 없는 인간으로 여긴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인간이

기에 존중받아야 함을 언제나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정작 그들을 대하는 모습은 과연 인간으로서 존중을 하고, 인간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

노숙인을 용어 그대로 풀이하자면 거리에 노숙하는 사람이다. 누구도 노숙인의 운명으로 태어나거나, 노숙생활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고 게을러서도 아니다. 장애 또는 부족한 환경으로 인해, 사회적 무관심에 그들은 거리로 내몰린 것이다.

요즘은 동물들도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보호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보호는커녕 왜곡된 시선으로 그들을 더욱 궁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긍정적으로 바꾸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저물지만 저물었던 태양이 다시 동쪽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비록 현재는 저물어 버린 태양처럼 어두운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자그마한 시선변화와 관심에 그들도 새롭게 떠오른 태양처럼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 갈 수 있음을 말이다.

노정옥 _ 오순절평화의마를 사회복지사

인간이기에 그 가치가 있고,
인간이기에 존엄한 존재이다.

내 인생 내 지게에 지고

-서상훈

소리내고 무거운
내 인생 내 지게 지고
먼 길 떠났네,

헤어진 옷가지는 밤
발하닥 보기 미안한 땀은 운동화
발걸음 더디게 하지만
아름도 힘겹게 걸어 갑네다,

숨가쁜 오르막 길도
다리 떨리게 하는 내리막도
눈 어지럽히는 겨울 길도
한 번 쯤 다리 쉬어도 해보련만

눈이면 눈 맞고
비이면 비 맞고
그렇게 걸어 갑네다,

소리내고 빛바랜 내 인생일랑 내 지게에 진채
그러다 문득 돌아보니
함께한 엄마가, 아내가, 딸아이가, 동생들이
보이지를 않습네다,

아! 그림자,
이제는 무거운 이 짐 내려놓고
양지바른 잔디밭에 과방 쉬고 싶습네다,

배경_ 잠기지 않는 나무문 하나 열고 들어가 불을 켜면 형광등 옆으로 전선이 어지럽게 연결 되어있는 삼오장 여관방
서상훈_ 젊은 시절 일이 잘 안 풀려 생과 사의 기로에 섰을 때 금정희망의집을 만나 다시 삶의 활력을 찾았으며 지금은
시설 근처 여인숙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 쓰기를 좋아하여 금정희망의집 시 동아리에서 활동 중에 쓴 작품을
낮선아침에 꾸준히 기고 중이다.

세월 앞에서

눈을 살짝 감으니 지나간 모든 세월이 보이네

눈을 또, 크게 뜨니 앞이 보이네

남은 내 인생 얼마나 남겨졌을까?

받고만 살아온 삶, 부끄럽구나

주고싶다. 몸뭉치. 마음 씩씩이.

마지막 그날까지라도.....

배경_ 부산 진시장 뒷길 낡은 여관들이 자리하는 골목길 초저녁

(가명)김동주_ 부산진구 사랑그루터기 이용자이면서 독서 및 산책, 장터 구경하는 것이 취미이다.
이 시는 얼마 전 물만골 국가인권위원회에 한 달간 전시되었던 작품이기도하다.

성악, 선암사,
생태 습지가 어우러진
고마운 나들이

순천만 예술여행

저는 순천만으로 예술여행을 다녀온 56년생 김정술입니다.
우리 희망 나눔방에서 순천만 예술여행을 고지하고
무심코 신청했는데 정말 놀란 것이 이렇게 생긴 열차를
처음 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에게 물어봐도 잘 모릅니다.
59년을 살면서도 이런 열차가 있는지 모르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열차를 좀 타고 가다가 싶더니
성악하는 분들이 나와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기다리니 소프라노가 나와서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성악을 접하고 들으니
감동이 따로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테너가 불렀는데
처음 듣고 경험하는 것만으로 너무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이 날은 내 생의 최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동안 순천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로 갈아타
고 선암사 입구에서 점심을 먹는데 메뉴는 산채 비빔밥이
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신선이 따로 없구나 싶었습니
다. 식사를 마치고 선암사로 15분 정도 가서 일주문 앞에
서 사진도 찍고 합장 후 좀 더 오르니 입구에서 기념품을
팝니다. 기념품을 구입할 돈은 없어 사지는 못했고 주위
를 둘러보니 그날따라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마음이 불편
할 정도로 번잡했습니다. 문화해설을 해주는 분은 우리나
라 사람이 아닌데도 유창하게 잘 설명해 주어 너무 고맙
습니다.

그리고는 순천만 자연 생태공원으로 이동했는데 갈대도
무성하고 그 속에 게와 멧장구리 비슷한 고기가 자기 보호

색을 하고 다니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순천만 정원 박
람회와 자연 생태공원은 너무 넓고 볼 것이 많아 절반만
보고 온 것이 아쉬웠습니다.

다시 타고 왔던 열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저녁 도시락을
주었습니다. 김치참치볶음이었는데 정말 맛이 좋았습니
다. 열차에서 커피도 대접받고 이 날은 내 생의 최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힘없는 사람을 위해
서 더 많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재단 파이팅!

김정술 _ 올해 노숙인 기타동아리 활동으로 개인 기타가 생겨 새로운 취미
활동에 빠져있는 동구쪽방상담소 우수회원.

함께하고 함께 밥먹는 게 봉사 순천만 예술여행을 다녀와서

동구쪽방상담소 주민들과 함께 했던 활동으로는 재작년 여수엑스포에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부산문화재단의 주관으로 참여한 여행이었는데 봉사자로 특별히 무엇을 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과 함께 다니며 구경하고 밥 먹는 게 다였는데 봉사라는 단어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여행 한번 편히 가지 못하는 많은 소외계층 분들과 함께 힐링하는 봉사자들이 더 많이 생겨 좋은 여행과 문화를 누리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8월 28일 막바지 여름, 가을을 재촉하는 몽게구름을 바라보며 동구쪽방상담소 주민분과 함께 자원봉사자로 순천만 에코 힐링투어 예술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대상자들과 함께 여행에 동참하고 싶었으나 봉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고민하고 있던 터라 거절 아닌 거절을 해보기도 했으나 “함께하고 함께 밥먹는 게” 봉사라시며 담당 선생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이번 순천만 에코 힐링투어 예술여행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문화재단에서 주관하고 전문 여행사의 도움을 받아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지불하고 가이드 안내를 받으며 관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번 여수엑스포처럼 각 조별로 알아서 다닐 줄 알았는데 각 버스에 여행사 직원이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니 각각 방문할 관광지를 좀더 쉽게 이해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여러 제반 문제 발생의 상황도 안심이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순천역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준비된 버스로 선암사를 향해 가는데 창밖에 경치가 이름 있는 관광지인지라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일정이 점심식사가 먼저여서 선암사 입구에 있는 맛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역시! 전라도네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맛있는 반찬이 상다리 휠 정도로 많아서 안 먹어도 배불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함께 가신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라 밥을 맛있게 드신 후 나른한데다가





제법 거리가 있는 오르막이라 선암사까지 도보 이동은 조금 무리인 분들도 있지 않았나 싶었지만 선암사 관람 자체는 좋았습니다. 날씨도 시원했고 맑은 공기와 푸른 숲이 울창했고 조용한 절 풍경이 함께한 어르신들 힐링에 제격이었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자연 생태공원에 갔는데 어찌나 넓은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큰 규모라 들어서는 순간부터 볼거리가 많을 거라는 기대로 마음이 풍족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몰려온 관광객들 사이로 많다고 생각했던 우리 일행들이 위축되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공원 내에서는 자유 관람이라 자칫하면 어르신들이 일행들과 떨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신경 쓰면서 신속하게 관람한다고 넓은 공원을 구석구석 보기란 시간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공원 안에 있었던 사실 만으로도 많은 힐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만 정원에 갔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곳이 젤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성한 정원이지만 최대한 자연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드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 곳 역시 엄청나게 넓은 정원이라 몇 군데 선택해서 집중관람을 했습니다. 어르신 몇 분과 함께 달팽이관 처럼 생긴 언덕에 올랐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올라다 보면서 걸어가면 누구는 내려오고 누군 올라가는데 아주 잠시 미로처럼 혼란했죠. 그림을 그리면서 이 언덕의 비밀을 풀어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았던 비밀을 알고 보니 너무 쉬워 허탈하기까지 했던 게 부끄럽네요. 그래도 이 짧은 시간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어 기분이 좋았습니

다. 다같이 사진도 찍고 개인적으로도 가장 만족스러운 이 정원에서조차 역시나 짧았던 시간이 아쉽기만 합니다.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모이는 시간을 몰라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담당자를 제외하고 순천역으로 돌아갔던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 납니다. 다행히 그분은 택시타고 시간 안에 도착해 함께 기차를 탔고 부산으로 다같이 돌아 올 수 있었지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순천만 여행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S트레인 일명 남도해양관광열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특급열차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마 같이 간 어르신들도 특색있는 기차의 경험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미리 준비한 기차 안 공연을 관람하며 창밖 경치를 보며 달렸던 기차여행에 저와 어르신들 모두가 그 감흥은 잊을 수 없어요. 또 약간 흔들리는 다레실에서 마셨던 전통차의 맛과 향기도 너무 이색적이었고 서로서로 수다도 떨면서 갔던 재밌고 좋았던 기억이 가득한 힐링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여행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 여행 한번 편히 가지 못하는 많은 소외계층 분들과 함께 힐링하는 봉사자들이 더 많이 생겨 좋은 여행과 문화를 누리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황인웅 _ 동구쪽방과 인연이 되어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으며 요한기획을 운영하고 있는 뜻 있는 사장님.

가을엔

가을엔 나름대로 돌아가게 하라 곱게 물든 단풍잎 사이로
가을 바람 물들면 지나가듯 지상의 모든 것들 돌아가게 하라

지난 여름엔 유난히도 슬펐어라

폭우와 태풍이 우리들에게 시련을 안겼어도 저 높푸른 하늘을 우리러 보라

누가 저처럼 영롱한 구슬을 뿌렸는가 누가 마음들을 모조리 쏟아 펼쳤는가

가을엔 헤어지지 말고 포옹하라 열매들이 낙엽들이 나뭇가지를 떠남은 이별이 아니라

대지와와의 만남이어라 겨울과의 만남이어라 봄을 잉태하기 위한 만남이어라

나름대로의 길 가을엔 나름대로 떠나게 하라

단풍물 온몸에 들이며 목소리까지도 마음까지도 물들이며 떠나게 하라

다시 돌아오게 돌아와 만나는 기쁨을 위해

우리 모두 돌아가고 떠나가고 다시 돌아오고 만나는 날까지 책장을 넘기거나

그리운 이들에게 편지를 띄우거나 아예 눈을 감고 침묵하라

자연이여 인간이여 우리 모두여

김원석 _ 현재 고기집 취업으로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금정 희망의집에서 생활하다 얼마 전 작은 방을 구하여 독립하여 지낸다.



신용회복에 관한 법률 정보 코너 첫 번째 개인파산

사례_50대 여성

Q 한 기업의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사업실패와 지인의 사기로 인해 1억 5천여 만원의 금융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실패와 이혼으로 인해 뇌경색이 왔고 수술 후 채무문제 변호사, 법무사사무실을 찾아보려했으나 높은 수수료로 선뜻 가보지 못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와 같은 경우 비영업자(불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파산신청 자격조건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 탕감 가능.

2. 파산신청 방법 안내



3. 신청서류 총 6가지 (준비서류)

교부처	법원 또는 인터넷 교부 (부산지방법원 →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 개인파산/면책)
준비서류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파산신청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기타첨부서류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 제출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주의!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였어도 소송은 본인의 출석으로만 가능)

5. 파산신청시 소요 비용

수수료	정부수입인지 : 1,000원 (신청서에 폴로 붙임)
송달료	기본 35,500원 + (채권자수×3,550원×3)

6. 파산 선고 후 불이익의 경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자로서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본인에게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사법 (公·私法)상의 제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 행위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 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의 제거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되고, 신원증명서의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 됩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법률상담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시 02-132) 홈페이지 www.klac.or.kr



영상
동아리
학생

세상밖으로

영상 동아리 아자아자 모임 이야기 _
동아리 활동으로 카메라 사용법을 배우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나누며 영상을 촬영하며 우울감이 해소되고 자존감 회복하여 삶의 의욕을 갖게 되다.

영상동아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동안 살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세상 속에 있었던 나는,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삶에 있어서 남 모르는 괴로움 때문에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줄 알면서,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순간순간 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 돈만 벌기 위해 발버둥치며 '갑'으로 살아왔지만 지나고 보니 어느새 나는 '을'이 되어 있었고 지금에 와서 지난 모든 재산이었던 십사억 칠천여만 원을 잃고 나니, 당시에 사장으로 대접받던 내가 (실은 고달프고 굶신거리며 살아왔던 모습과 같이 돈을 좀 벌어난 사람이라면 이 가슴 아픈 심

바깥세상으로 나갔을 때 무언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도 이 세상에서 살아볼 가치가 있는가 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을 조금이나마 알까라 생각합니다.) 이제야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돈 버는 일에 얽매었던 나의 모습을 정리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살고 있으니 오히려 편한 마음이 듭니다.

이때 동구쪽방상담소 이선생을 만나 영상동아리 모임에 참여하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선 우울했던 시간이 줄어든 것 같구요. 바깥세상으로 나갔을 때 무언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도 이 세상에서 살아볼 가치가 있는가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몰랐고 순천 에코 예술여행 활동과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작품전 활동으로 사진을 찍고 영상 활동을 하며 직접 사진을 현상하여 회원들에게 나누고 문화재단 이선생과도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나누는 활동을 통해 삶의 기쁨과 함께하는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모임을 참여하면서 나의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기분이네요. 함께 해 오신 분들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영상동아리 모임에 다양한 삶의 경험이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농담을 하기도 하고 복지서비스에 참여하고 때로는 서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서로 간에 욕을 하며 언쟁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동아리모임에 지켜야 할 약속이 생기고 서로 간에 더욱 잘 지키고자 노력하며 다음 모임 약속 등에도 더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고자 노력합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공연에도 참석하고 영상 작품을 함께 촬영하여 영상물과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상동아리 활동이 부족하지만 서로 간에 이웃의 정을 나누고 삶의 자존감을 조금 더 느끼고 삶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좋은 활동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상석 젊은 시절 이발사 자격증으로 이발소를 운영하다 인생의 모진풍파를 겪었으나 지금은 동구쪽방상담소의 영상동아리 활동으로 스마트폰의 세계에 빠져 영상 찍기에 전념하고 있다.





드디어 공연 당일, 무대에서의 기분은 최고였다. 작은 무대였지만, 그 위에서 듣는 박수소리는 나에게 희열감을 안겨주었다. 무대에서 내려와 서로 잘했다고 격려하며, 다독거리면서 두드림 난타팀의 서로 간의 끈끈한 애정도 한 번 더 확인한 순간이었다.

난타 동아리 학생

난타 소리 울리는 지금 여기

난타를 시작한지 5개월이 지났다. 이런 저런 삶의 과정에서 어쩌다 오랜 세월 혼자 지내오면서 별 즐거움이 없이 살아왔는데, 난타를 시작하면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1주일에 한번 강사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데, 노래 한 곡으로 3달 동안 연습하였다. 처음에는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몸을 쓰러니 몸 따로 마음 따로 움직이면서 혼자 뒷북을 치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제법 한소리를 내고 있다. 많이 서툴고 버벅거려도 강사님은 항상 웃으시면서 누구나 처음엔 다 그렇다고 용기를 주시고, 상담소 선생님들도 나도 잘 안 된다며 격려해주신다.

난타수업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대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니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었다. 이 실력으로 과연 무사히 공연을 끝낼수 있을까, 나는 공연에서 빠진다고 할까 등등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자면서 10월 14일 공연에 서게 되었다. 다행히 우리 두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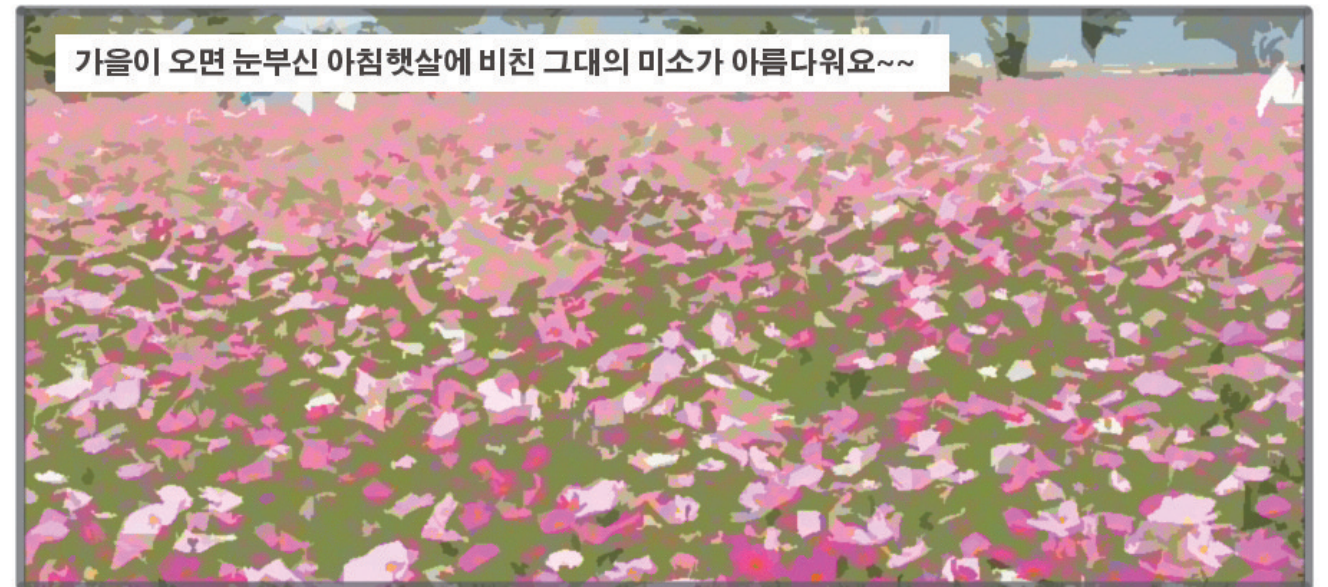
난타 팀이 메인공연이 아니어서 부담을 덜 가져도 된다고 하여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임했다. 공연을 앞두고 1주일 전에는 매일같이 연습하러 왔으며,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다.

드디어 공연 당일, 무대에서의 기분은 최고였다. 작은 무대였지만, 그 위에서 듣는 박수소리는 나에게 희열감을 안겨주었다. 무대에서 내려와 서로 잘했다고 격려하며, 다독거리면서 두드림 난타팀의 서로 간의 끈끈한 애정도 한 번 더 확인한 순간이었다. 평소 난타수업시간 외에도 상담소에서 만나면 난타팀원들끼리는 한 번 더 인사하고 몇 마디라도 더 나누게 되면서 소속감 같은 것도 느낀다. 이번 공연무대를 통하여 나 스스로가 대견스럽고,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11월에 있을 공연에 대비해서 오늘도 힘을 내어본다.

어쩌다 보니 아주 많이 늦은 나이에 난타를 하게 되었는데, 북을 두드리면서 내 심장도 쿵쿵 울리면서 젊어지는 기분이다. 이렇게 난타를 접하게 해주신 상담소 선생님들에게도 고맙고, 항상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강사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 난타수업을 지원해주신 부산문화재단 측에도 감사함을 전한다.

이경선_ 사랑그루터기 이용자이면서 요양보호사로 몇 년째 꾸준히 목욕봉사와 입담으로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는 재주 많은 쪽방주인.





예경수_ 그림을 전공했지만 좋은 기회가 없어 아직 날개를 달지 못한 예술가로 늘 창작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며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느끼면서 살고 싶은 젊은 캐리커처 작가.



노숙인쉼터 · 교회가 이끌어준 인생 제2막

‘낮선아침’이란 계간지 제작을 위한 제안서를 쓰기 전에는 노숙인이라는 단어가 그저 막연하고 낯설게 느껴졌다. 막상 ‘낮선아침’의 제안서를 준비하다보니 노숙인은 어떤 분들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노숙인의 법적인 정의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상당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사람’이라고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 규칙에 나와 있었다.

김현수 씨와의 인연은 ‘낮선아침’ 입찰 선정 후 첫 편집회의 자리에서 시작됐다.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김현수 씨는 본사가 추가 제안한 ‘노숙인 취업 알선’에 관심을 보였다. ‘낮선아침’ 제작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를 만날 기회가 늘었다. 이 글은 그와의 만남을 통해 본 ‘인간 김현수’와 ‘사회’를 정리한 내용이다.

갑자기 찾아온 노숙생활

김현수 씨도 여느 노숙인처럼 노숙 이전엔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학교 졸업과 동시에 친형이 경영하던 밸브공장에서 20여년 넘게 납품, 관리, 수급 업무를 봤다. 하지만 형님이 질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인생이 틀어지기 시작한다. 특별한 기술이 없던 그를 지켜본 한 사채업자의 권유로 사채업에 뛰어들어 나름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사채시장을 법적으로 압박하면서 위기를 맞았고, 큰 빚을 지고 말았다. 가정은 풍비박산 났고, 그 충격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갚아야 할 1억원을 탕진한다. 결국 빈털터리가 된 김현수 씨는 자포자기로 노숙생활에 접어든다. 처음엔 눈 떠 일어나도 돈 내놓으라는 사채업자들을 보지 않으니 편하기도 했다. 하지만 거리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한뼉잠을 자는 생활이 반복되고 술에 의지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축났다. 급기야 삶의 의욕이 바닥까지 내동댕이쳐졌다.

‘포기’·‘나태’와 결별,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하지만 ‘그냥 죽으란 법’은 없었다. 바로 그때 구원의 손길 이 찾아왔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노숙인센터의 각종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숙 생활 1년 6개월만이었다. 3년 동안 노숙인 쉼터의 교육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포기’와 ‘나태’에 익숙했던 자아와의 갈등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데 도움을 주는 ‘노래 부르기’, ‘인문학 교육’, ‘그림 그리기’ 뿐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지켜봐준 쉼터 선생님·봉사자, 비슷한 처지에서 힘을 북돋아 준 동료들이 있어 삶에 의지를 다잡을 수 있었다. “월급을 받고 성실히 살아가는 소중함을 교육을 통해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라고도 얘기했다.

김현수 씨는 교육 시작 후 지금까지 틈틈이 벼룩시장 같은 무가지에서 취업정보를 모으는가 하면, 한 달에 다만 몇 만원이라도 저축하기 시작했다. 최근엔 임대주택에서 보증자리도 마련하고, 노숙 당시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조건부 수급 요건을 충족시켜 기초수급비로 50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생활이 안정되니 나쁜 습관도 바꿨다. “좀 더 긍정적으

로 부딪쳐 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노숙 생활을 할 때는 풍조를 줍거나 구걸해서라도 담배를 하루 2갑 이상씩 피우고 소주를 손에 놓지 않았는데 절제하는 습관도 생겼다.

고마운 지게골 동교회 사람들

벼랑끝 생활을 청산하기까지 교회의 관심과 격려도 큰 도움이 됐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를 비롯한 지게골 동교회 400여명의 교인들이 고맙다. 교회 예배에 참가하면 받을 수 있는 구제헌금 1000원은 액면가치 이상의 의욕을 가져다 줬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 일찍 나와 준비하고 새벽기도도 나가기 시작했다. 성실함을 인정받으면서 교회 차로 운전연수 겸한 봉사도 다니게 됐다. 이러한 독실한 신앙생활로 오히려 노숙 이전보다 인격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었다. 원래 양보하는 법이 없는 성격이었지만 이젠 주위에서 괘시하다더라고 ‘끝까

지 인내하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참으려고 노력한다.

김현수씨는 ‘낮선아침’을 제작하는 본사에서 면접을 보고, 올 추석을 지나고 정식으로 출근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에 꿈에 부풀어있었다. 하지만 채무와 얽힌 사채업자들이 들이 닥쳐 회사에 누가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기회를 스스로 반납했다. 그렇게 마음 어린 김현수 씨는 스승의 날엔 거창한 사례는 아니지만 무료급식소 선생님, 교회 봉사자 등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사십여 분들에게 목욕비라도 하시라고 2만원이 담긴 봉투를 전할 정도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아직 김현수씨는 가족과 재결합할 정도의 여건은 마련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는 “어렵더라도 현실에서 발붙이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비록 지금은 일터에서 함께 하진 못하지만 빠른 시간에 같은 일터에서 동행 할 것을 기대하며...



과거로부터, 마음의 풍경으로 눈을 돌리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온 지금, '집으로 찾아가는 영화관' 상영회도 세 번째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회차가 넘는 상영회를 진행하며 밴드 라이브 공연, 노래경연대회, 미술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열었습니다만, 오늘은 그간 노숙인들과 함께 감상한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4월 16일 첫 상영회 이후, '집으로 찾아가는 영화관' 스태프의 가장 큰 고민은 노숙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의 회의를 거쳐 월별 상영테마를 정하고, 그 테마에 걸맞은 영화들을 배정하기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작품들을 선정해왔지요. 물론 상영회 중간 중간 저희의 기대와 다른 반응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치고 받고 부수고 시끄럽기만 하다.' 또 어떤 날은 'TV에서 벌써 2번이나 본 작품이다. 요즘 작품 좀 틀어 달라'와 같은 반응이, 한번은 '지루하다. 이소룡 영화나 쪽 틀어 달라'는 요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가장 신경 쓰이게 하는 반응은 따로 있었지요. 매회 다른 작품을 상영해도 그저 무심히 스크린을 응시하는 반응들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영화 취향이 다르듯이, 노숙인들의 영화 취향 또한 쉽게 헤아리기 힘들이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제가 그런 무심한 반응들을 계속 신경 쓴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집으로 찾아가는 영화관' 스태프들은

영화 상영 전 매번 옛 가수들이 옛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틀어 주곤 했습니다. 자연스레 영화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그 노래 영상이 나올 때에는 거의 모든 노숙인분들이 몰입을 할뿐더러, 지그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곤 하였습니다. 어째서 이리 달랐을까요?

얼마 전 이 의문에 실마리를 제공한 일화가 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영화관' 상영회에는 한 회도 거르지 않고 찾아오시는 노신사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 노신사 분을 눈여겨보게 된 이유는 어떤 영화를 틀어도 어떤 장면이 등장해도 '결결결' 너털웃음을 지으시는 특별한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참다 참다 못해 그 이유를 여쭙어 보았지요.

"아저씨는 왜 영화를 볼 때마다 웃으시는 건가요? 저 장면은 심각하고 슬픈데 왜 웃으시는 거예요?", "영화? 저거 다 과거잖아. 다 과거에 찍은 거잖아. 지금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슬퍼하니까 웃는 거지. 결결결."



'아. 누군가에게는 영화가 과거일 뿐이구나. 그것 밖에 안 되는구나.' 웬지 영화를 볼 때에는 무심하지만, 옛 가수와 옛 노래가 나오면 박수를 치고 따라 부르며, 때론 명상에 잠기는 그들의 반응을 이해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마도... 어떤 영화는 이 모든 소란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감언이설로 포장하지만, 외려 어떤 노래는 과거를 정직하게 추억하고 부르기에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아 마음 속 풍경을 보게 만드는 것이겠지요.

얼마 전, 옛 배우가 주인공인 요즘 영화 한 편을 틀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마흔이 넘은 깡패 주제에, 깡패도 여전히 지켜야 할 덕목이 있다며 요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역할이었지요. 저는 그 날 상영회의 반응을 톡톡히 기억합니다. 옛 배우의 일거수일투족에 환호와 탄성이 흘러나왔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에는 '잘 보았시다!'라는 큰 목소리와 박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눈을 슬며시 감고 있었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과거와 이별해야하는 순간을 종종 맞이합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없듯이, 어느 순간 몰입하는 그 마음 속 풍경만은 붙잡아야할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 속 풍경은 현실의 소란스러움에 눈 돌리고, 자신의 여전히 지켜나가야 할 정직한 모습을 떠올리게 해줄지도 모르니까요. 역설적이게도 과거와 정말 이별하는 방법은 붙잡아야 할 과거를 먼저 찾는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광 _ 모퉁이극장 기획팀장. 현재 '찾아가는 영화관' 스태프로 참여 중이다.





김씨의 익숙한 하루

(제공단체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월

- ▶오전 10:30 부산진역 카스테라빵 1, 요구르트 2

화

- ▶오전 09:20 매달 첫 주 화요일 양정역 2번 출구 양정교회 주차장 경비실 500원
- ▶오전 10:00 초량역 5번출구 삼일교회 1,000원
- ▶오후 01:00 못골역 4번출구 성결교회 500원



목

- ▶오전 09:30 좌천역 1번출구 부산제일감리교회 커피1, 육개장사발면1
- ▶오전 09:00~09:20 매월 마지막주 부산진역 1번출구 성일교회 새우탕면 1

금

- ▶오전 09:20 경성대 부경대역 5번출구 용호동 한빛교회 1,000원
※ 주위 성당 및 교회 등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오전 11:00 거제역 8번출구 법원 뒤 무상사 식판식사 (번호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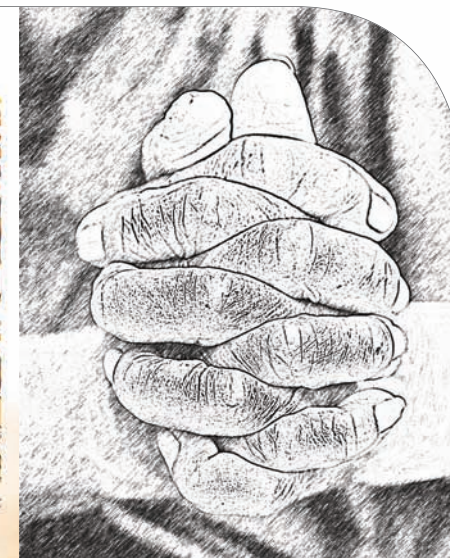
토

- ▶오전 08:30 매월 마지막주 체육공원역 2번출구 대지장로교회
예배 후 1,000원 지하에서 아침제공
- ▶오전 11:00 거제역 8번출구 법원 뒤 무상사 식판식사 (번호표 확인)



수

- ▶오전 09:20 대티역 1번출구 산정현교회 500원 (선착순50명)
- ▶오전 10:00 첫째주~셋째주 양정역 2번출구 제일교회 1,000원
- ▶오후 01:30 부산진역 7번출구 수정교회 육개장사발면 1, 요구르트 1
- ▶오후 02:00 연산동 양문교회 예배 후 1,000원



일

- ▶오전 07:00 양정역 2번출구 양정중앙교회 예배 후 1,000원 지하에서 국수 제공
- ▶오전 09:00 온천장역 5번출구 소정교회 9시 예배 후 2,000원 10시 20분에 아침 겸 점심제공
- ▶오후 02:00 남포역 6번출구 영도화평관 예배 후 1,000원



부산시 사회복지과와 함께하는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안내

겨울철 대비한 노숙인 집중지역 순찰 및 시설
이용자 지원 강화 등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을 시행하여 동사 등 안전사고 발생
예방과 노숙인 자활을 위한 지원 대책 안내



기간

2014. 11. 1 ~ 2015. 2. 28 (4개월)

추진방향

- 유관기관 간 협조를 통해 효과적인 동절기 대응체계 구축
- 거리노숙인 집중지역, 취약지역 등 순찰·상담 강화
- 한파에 대비한 시설입소자 및 쪽방거주자(독거노인, 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의 안전사고 방지 및 생활안정 지원 확대

주요내용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 노숙인 현장대응반 구성 (반장: 사회복지과장) ▶ 공공 및 민간 유관기관
- 거리노숙인 현장 순찰 및 보호강화
 - ▶ 노숙인 집중지역 현장 순회 전담팀 운영 ▶ 노숙인시설
 - ▶ 구·군별 자체 거리상담반 구성, 순찰 강화
- 응급보호시설 지정·운영 및 노숙인 진료 지원 강화
 - ▶ 노숙인시설, 구·군 당직실, 사회복지시설·종교시설 등 응급보호
 - ▶ 만성질환자 등 위기관리팀 운영, 무료진료소 현장진료활동 강화
- 시설이용자 및 쪽방거주자 등 지원 확대
 - ▶ 월동난방비, 응급잠자리 조식, 쪽방거주자 월동물품 지급 등
- 시설 안전점검, 입소자 안전교육

세부내용

1. 거리노숙인 현장 순찰 및 보호 강화

- 노숙인 집중지역 현장 순회 전담팀 구성·운영(안)
 - ▶ 현장 순회 활동사항
 - ▶ 전담팀구성 : 2개반
 - 활동일시 : 매일 주간 수시, 야간 22:00~04:00
 - ※ 일요일 : 체감온도 영하5℃ 이하 시 합동 실시
 - 중점 활동지역 : 집중지역, 공원 등 취약지역 등
 - ▶ 주요 내용
 - 凍死 등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
 - 야간 밀착상담으로 자활·재활·요양시설 입소 보호조치
 - 시설입소 기피자는 응급잠자리 및 종합지원센터 이용 홍보
 - 체온체크, 동사위험행위 및 인플루엔자 예방활동 등
 - 노숙인 인신매매·사기·인권침해사건 등 예방교육 및 홍보 실시
- 구(군) 자체 거리상담반 구성·운영
 - ▶ 자체 관내 거리상담반 구성 운영
 - ▶ 경찰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관내 취약지역 순찰
 - ▶ 필요시 노숙인시설과 연계 등 적절한 조치

2. 응급보호시설 운영

- 응급보호시설 지정
 - ▶ 입소시설 : 노숙인 자활시설4, 재활·요양시설 4, 응급잠자리1 등
 - ※ 여성일시보호소 2개소 : 마리아마을, 응급잠자리
 - ▶ 임시보호소 : 16개 구·군 당직실, 복지·종교시설(구·군 지정) 등
 - ▶ 응급구호방 : 10실(종합지원센터 2개소에서 각 5실 운영)
 - 가족노숙, 여성노숙 등 혹한기 일시보호
- 운영방법
 - ▶ 위험지역에 있는 노숙인 우선적으로 시설입소 유도
 - ▶ 입소시설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시 정원 초과 수용
 - ▶ 입소시설에 보호할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임시 보호소나 응급구호방 이용(익일 시설로 연계)
 - ▶ 여성노숙인은 여성일시보호소 2개소에서 보호하고, 익일 시설입소 또는 주거지원(구군, 쪽방상담소) 연계
 - ▶ 가족노숙인은 임시보호소, 응급구호방 등에서 우선 보호하고, 상담을 거쳐 주거지원(구군, 쪽방상담소) 연계

3. 동절기 임시주거지원사업 운영

- 운영기관 : 동구 및 부산진구쪽방상담소
- 지원 : 거리노숙인 (긴급주거지원 비해당자)
 - ※ 긴급주거지원 해당자는 각 구·군에서 우선 지원(연계)
- 지원내용 : 임시거소(여관 등) 지원, 공적자원연계, 생활용품지원 등

4. 노숙인 진료 지원 강화

- 동절기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강화
 - ▶ 운영기간 : '14. 3월~'14. 2월(12개월) → 주3회 현장 활동
 - ▶ 운영기관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 ▶ 지원 : 만성알코올·정신질환·결핵노숙인 등 30명
 - ▶ 인력구성 : 전문의(정신과·내과),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
 - ▶ 내용 : 상담, 진단, 병원·시설 연계, 사례관리 등
 - 현장대응팀과 위기대응팀을 구성·운영
- 노숙인 무료진료소 현장 진료활동 강화
 - ▶ 내용 : 자체 진료 활동 및 보건소, 부산의료원과 연계 치료를 위한 진료의뢰서 발급 등
 - ▶ 진료인력 : 2명(공중보건의 1, 간호사 1)
 - ▶ 진료일정 : 평일(매일 09:00~18:00)
 - 야간진료 : 화, 금요일 (18:00~21:00)
 - 이동진료 : 목요일(11:00~13:00), 부산진역
- 야간 환자 발생시 조치사항(체온체크 등 확인 결과)
 - ▶ 부산의료원 이송(필요시 119 또는 파출소 협조)
 - ▶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 부산의료원 진료 후 ⇒ 시설 입소
 - ▶ 중증환자 : 부산의료원 입원 ⇒ 퇴원 후 시설 입소 유도
 - ※ 응급보호시설에서는 환자 격리보호 공간 확보
- 시설입소자 질병관리 철저
 - ▶ '노숙인 의료급여'에 대한 상담·신청 안내
 - ▶ '인플루엔자 예방행동 요령' 준수

밥 먹으며 씹을 하나에 스민 햇살을 잘게 씹는다. 콩알 하나에 배인 흠내음, 농부의 손길 되씹는다. 삶은 소화하는 것처럼, 밥을 씹는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인생을 삼키는 일은 아닐까? 더운 밥 한 주걱 퍼주는 손길이 다정하다. 식판 위에 정성을 수북이 담고, 사랑을 한 국자 퍼 담아 오늘도 감사로 배를 채운다. 밥을 먹었지만 마음이 부른다.



식사 정보



아침

매주 수요일 06:30 두춧대교회 국밥

매주 금요일 06:30 두춧대교회 국밥



점심

월 10:30 기장 살렘회복선교센터 카스테라1, 요구르트2

12:00 물만골 사랑나라 식판식사

화 12:00 밥퍼 식판식사

12:00 대한적십자(매월 셋째주) 식판식사

수 12:00 김해 가나안교회 식판식사

14:00 찾아가는영화관 빵, 커피

목 12:00 신빈회 식판식사

금 12:00 밥퍼 식판식사

토 12:00 김해 가나안교회 식판식사

일 12:00 무지개 식판식사

부산진역 8번출구 무료급식소

저녁

월 16:30 광장밥상 국밥

화 16:30 밥퍼 국밥

18:00 개인(매월 2번) 수제비

수 16:30 밥퍼 국밥

목 16:30 수영로교회 식판식사

금 16:30 명장동 예인교회 국밥

토 16:30 한우리 식판식사

일 16:30 신빈회 식판식사



1. 응급잠자리 설립일자 : 2008년 1월 2일

2. 응급잠자리 면적

순서	장소	단위(mm)	넓이(㎡)	평수	취침 가능인원
			소수점3자리에서 반올림		
1	취침실	7600×11800	89.68	27.12	27.12
2	코골이방	2513×5800	14.58	4.41	4.41
3	신규방	2400×3000	7.20	2.18	2.18
4	여자방	3000×3000	9.00	2.72	2.72



3. 응급잠자리 근무자

- 가. 직원 : 2명
- 나. 자활근로자 : 3명

4. 응급잠자리 입소조건

- 가. 입소대상
 - 1) 본 시설에 입실을 희망하는 자
 - 2)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경찰관서 등에서 의뢰되어 온 자
 - 3) 기타 시설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이용제한 대상

- 1) 당직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 : 1주일간 이용정지
- 2) 건강(재)검진 미검자 : 건강(재)검진 결과 확인 시까지 이용정지
- 3) 음주자 : 당일 이용 금지
- 4) 약물의존자 : 약물치료 관련 프로그램 참여 시까지 정지
- 5) 시설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자 : 3개월 이용 정지
- 6) 금품갈취자, 기물파손자, 폭행자 : 3개월 이용 정지
-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익일 관할 동/구청에 통보
- 8) 기타 단체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자

5. 응급잠자리 이용현황

(2013년 12월 현재)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평균인원	50	49	39	29	25	21	21	21	22	16	17	18	328

6. 응급잠자리 위치 및 연락처

- 가.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14 (전포2동 667-3)
- 나. 연락처 : 051) 463-1127
- 다. 위치



Review

2014 찾아가는 영화관

11월~12월 상영작 안내

- 상영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2시
- 장 소 : 부산진역 무료급식소



영화_ 당산대형

감독_ 나유

출연_ 정조안(이소룡), 허검(전준)

상영일_ 2014년 11월 5일

정조안은 수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돈을 벌기 위해 삼속을 따라 허검 일행이 사는 곳으로 온다. 조안은 허검의 소개로 그들이 일하는 얼음공장에 취직을 한다. 얼마 후 조안의 실수로 큰 얼음이 깨지고 아건과 진우는 그 속에서 마약 봉지를 보게 된다. 그 후 공장장을 만나러 간 아건과 진우가 실종되자 허검은 그들을 찾기 위해 아강과 함께 사장의 집에 갔다가 변을 당하게 된다. 인부들은 파업을 선언하고 싸움이 일자 조안은 싸움에 말려들다 감독관으로 승진을 하게 된다. 공장장의 말만 믿다가 동료들의 미움을 사게 된 조안은 허검의 죽음을 알게 된다. 교매마저 납치당하고 동료들이 살해당하자 복수를 결심하는데...



영화_ 다찌마와리-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

감독_ 류승완

출연_ 임원희(다찌마와 리), 공효진(금연자)

상영일_ 2014년 11월 12일

1940년, 거대한 어둠의 조직이 세력을 확장해가는 가운데 최정예 특수요원들의 명단이 담긴 국가 일급 기밀문서와 여성 비밀요원 금연자가 작전 수행 중 사라진다. 임시정부의 수장들은 감춰두었던 마지막 비장의 병기를 꺼내기로 한다. 다찌마와 리는 남박사를 통해 신행 무기를 지원 받고 첩보계의 '검은 꽃'이라 불리는 스파이 마리를 파트너로 맞이한다. 사라진 기밀문서의 행적은 드러나지 않고 미스터리는 점점 커져 가지만, 발군의 실력과 기지를 발휘하는 다찌마와 리. 상하이, 미국, 만주 등 세계 전역을 넘나들며 첩보전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영화_ 영웅본색

감독_ 오우삼

출연_ 적룡(송자호), 장국영(송아걸), 주윤발(소마)

상영일_ 2014년 11월 19일

암흑가에서 성장한 자호. 경찰인 동생 아걸 때문에 손을 씻으려 한다. 그러나 음모로 감옥에 가고 친구 소마는 복수를 하다가 총에 맞아 다리를 절게 된다. 3년 후 출옥해 홍콩에서 새 생활을 시작한 자호는 옛 부하인 아성 밑에서 일하며 푼돈을 받는 소마를 발견한다. 소마는 암흑가 보스가 된 아성으로부터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고 하지만 송자호는 갱생의 길을 걷는다. 암흑가의 보스 아성은 송자호의 출현에 긴장하고 그를 화유하나 아랑곳하지 않자 아걸의 아버지를 살해한다. 아걸과 자호의 사이는 더 벌어지고 아성은 소마를 기습, 집단 린치를 가한다. 아호를 구출해 낸 소마. 산 위에서 홍콩 시가를 보던 둘은 최후의 일전에 나설 각오를 한다.



영화_ 하모니

감독_ 강대규

출연_ 김윤진(홍정혜), 나문희(김문옥)

상영일_ 2014년 12월 3일

단 하루의 만남을 위한 4년 간의 노래, 그녀들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세상을 울린다. 여성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출산할 경우, 유아를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은 생후 18개월. 18개월이 지나면 아기를 입양 보내야 하는 정혜, 가족마저도 등을 돌린 사형수 문옥. 저마다 아픈 사연을 가진 채 살아가는 여자교도소에 합창단이 결성되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가슴 찡한 감동의 무대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이다.



영화_ 고고70

감독_ 최호

출연_ 조승우(상규), 신민아(미미)

상영일_ 2014년 11월 26일

대구 왜관의 기지촌 클럽. 컨츄리 음악 연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상규는 '소울' 음악에 꽂혀있는 만식과 6인조 밴드 '데블스'를 결성한다. 상규는 입영통지서마저 뒤로하고 데블스와 자신을 동경하는 가수 지망생 미미를 이끌고 서울로 상경한다. 첫 무대인 '플레이보이클럽 그룹사운드 경연대회'에서 그들은 팝 칼럼니스트 이병욱의 눈에 띄게 된다. 그러나 시민회관 화재사건과 퇴폐풍조 강력 단속으로 무대 서기가 쉽지 않다. 그러던 어느 날 이병욱에 의해 무대에 서게 된 데블스는 큰 인기를 얻게 되고, 미미는 '미미와 와일드걸즈'를 결성, 고고댄스와 고고의 중심에 선다. 그들의 음악에 취한 젊은이들로 고고클럽은 매일 밤 뜨거운데...



영화_ 라이프 인 어 데이

감독_ 케빈 맥도널드

출연_ 신디 베어(본인), 매튜 어빙(본인)

상영일_ 2014년 12월 10일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 윤옥환 씨는 2001년부터 190개국을 여행해 왔으며, 지금은 네पाल의 카트만두의 늦선 거리를 달리고 있다. 그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등을 넘나들며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진정한 인생의 모습을 마주한다. 윤옥환 씨를 비롯하여 전 세계 197개국에서 8만 명이 자신의 삶을 직접 찍은 영상들 속에는, 쌍둥이와 함께 벅속의 아기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엄마, 분수에서 신나게 노는 아이들, 아픈 엄마에게 아직 어리광을 부리고 싶은 꼬마 소년, 생애 처음으로 면도를 배우는 사춘기 소년, 파병 군인과 영상통화를 하는 아내 등 인생의 모든 순간과 감정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마주앉아 보려 하지 않았던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글_ 김상현

‘마주앉은 우리’라는 단어를 보고 문득 생각이 들었던 건 지금의 나 자신의 모습부터 돌아 보게 되는 것 같았다. 마주앉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교감이 줄어들고 나만의 생활이 우선이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즐기며 가상의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과 달리 누구보다도 마주앉아 이야기를 하거나 들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우리’라는 말을 봤을 때 과연 나는 당당하게 그들과 ‘우리’라고 말 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반문을 해도 ‘아니다’라는 말이 우선이었다. 부끄러웠다. 하지만 ‘낮선아침’을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마주앉아 보려는 그들과 달리 내가 먼저 등을 돌린 채 귀를 막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사실은 두려웠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내가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는 다른 사람들 이라며 선을 긋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식지의 글들을 하나 하나 읽어가면서 결국 그들은 나 또는 우리와 다를 바 없고, 같은 고민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직업을 가지고 삶의 희망이 있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아직도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취업 전쟁 속에서 실패할 때 마다 얻는 좌절감을 느끼던 내 자신이 너무나 작아 보였다. 또 소식지 안쪽에 있던 ‘삶’이라는 시에서는 짧지만 몇 번이고 곱씹어 보게 되는 시였다.

여기 실린 작품들과 내가 그 작품을 읽고 있을 동안은 우리가 되었고, 작품을 통해 마주앉아 있었다. 내가 그들과 직접적으로 마주앉아 이야기를 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지만 이 소식지를 읽는 시간만 큼은 그들과 마주앉은 기분이었다.

결국 나의 잘못된 선입견이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을 만들어 낸 것일지도 모른다. 마주앉기부터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가 나란히 되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많은 낮선아침의 이 작은 움직임이 하나하나에 기대하는 바이다.



낮선아침 8호 표지_ 마주앉은 우리

혼자가 아닌 낮선 아침

글_ 심순정

아침햇살의 진정한 의미를 담아낸 ‘낮선 아침’은 매년 반갑습니다. 2014년 여름의 낮선 아침에서 〈동아리 이야기〉를 찬찬히 읽어나가며 진정한 ‘낮선 아침’들을 실천해가는 사람들을 마주 보게 됩니다. 사진과 글 속에서 기타를, 난타를 하며 설렘과 행복함에 젖어든 노숙인의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 집니다. 그들이 맞이하는 아침들이 모든 사람과 경이롭게 공존하는 방식을 뜻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또 한 번 낮선 아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들로 삶의 팍팍함에 고단함을 느끼는 건 어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 어떠한 일에도 정도가 있듯, 결국 그들에게 다른 이들보다 조금은 더 고된 환경과 조금은 더 많은 고난들이 찾아간 건 아닐까요?

대다수의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믿고 그것이 전부인양 그들을 평가합니다. 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어씌운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겉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기 전에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판단하며 비난의 손가락을 들이댔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때로는 ‘낮선 아침’을 대하며 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우리네 마음처럼, 이들 역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꿈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그들이 주인공인 일상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꿈이 있음을 기타소리와 난타소리, 움직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낮선아침’의 의미를 떠올려봅니다. “공존”과 “공감”. 서로가 공감하고 모두 함께 공존하는 낮선 아침들의 중앙에는 변화의 힘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변화는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혼자’서 해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열린 마음으로 마주 앉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천천히 다가가고 마주 본다면 모두가 따뜻한 아침 햇살 아래 마주 앉아 있을 거라 바랍니다. 새롭게 꿈꾸고 힘찬 아침들을 맞이하며 저도 작은 응원의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 순간, 숨을 돌리며 재정비할 시간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낮선 아침햇살로 따뜻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낮선아침 8호 22p_ 동아리 이야기 ‘딩가기타’



낮선아침 8호 24p_ 동아리 이야기 ‘두드림난타’



2013 노숙인 영상제작단 '아자아자' 공식경쟁 진출작 선정!!

일시	2014. 11. 23. (일) 16:00	2014. 11. 24. (월) 14:00
장소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작품명	내 거울의 창을 열다(GV)	내 거울의 창을 열다
감독	김창식	김창식
장르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러닝타임	42'	42'



제 6회 문화나눔 캠페인

재능나눔 음악회

〈달달한 무대〉



출연단체 부산시립예술단 연극, 무용, 합창, 국악, 교향악

게스트

두드림 난타 부산진구쪽방상담소 사랑그루터기
딩가 기타 부산동구쪽방상담소 희망나눔방
희망그루터기 오카리나 부산진구쪽방상담소 사랑그루터기

일정 11.25(화) 16:00-17:30 가온아트홀

주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E FOUNDATION

후원

부산시립예술단

제작 리뷰

장병윤 | 편집주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이사장

10월 마지막 주말 경복 봉화를 다녀왔습니다. 오래 전 귀농한 선배의 콩 수확을 돕기 위해서였죠. 콩알 하나 하나에 농부의 땀과 정성, 바람과 햇볕 등 우주의 기운이 스며들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귀가길 차창을 스치는 산과 들엔 계절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시간의 행로를 되돌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난 한 해 술한 생각과 노고들, 그 열매를 거둘 때입니다.

이재안 | 부산 동구쪽방상담소 상담사, 낮선아침 편집위원

지금 여기에서 다시 시작해도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허다하다. 아저씨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진전을 기대하다가도 이내 허망하다싶은 과정에 맞닥들이게 되면 그렇다는 거다. 그래도 좋다고 지인들에게 말한다. 풀꽃처럼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만 인간성의 진면목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구치소에 하루 있으면 몇천만원씩 해결하는 인간들에 비하랴. 겨울이 곧 시작된다. 지금 여기에서 다시 월동 준비에 들어간다. 홀리스분들의 삶이 다시 고단해진다. 주상복합 상양갑에서는 느낄 수 없지... 지금 여기에서를.

김도훈 | 부산 금정 희망의집 팀장

항상 믿고 싶지 않은 낮선아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낮선아침에 도전해 봅니다.

김현수 | 낮선아침 편집위원

외로운 가슴에 냉정과 열정을 품고 달려가야 하는 계절 가을이다. 우연히 굴러들어온 행운은 독이 될 때가 있고 자신의 그릇을 넘는 것에 욕심을 부리다 화가 닥치는 경우가 심심찮게 눈에 띄는 걸 보면 준비와 현실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박우신 | 낮선아침 편집위원

술한 사연과 곡절로 이루어진 삶을 이겨내고 버텨가면서 이런 저런 모습으로 각자 저마다 걸음걸이로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민경 | 부산문화재단 문화복지팀

2014년도 이제 막바지를 달립니다. 무엇보다 지나온 시간들을 수없이 돌아보게 되는 기간이지만 가을호를 내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낮선아침 독자로 바라보고자합니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닌 지금 존재하는 낮선아침에 우리가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 현황

시·도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종합지원센터	부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동구 고관로 46(초량동)	463-7707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14(전포동)	463-1127	
무료진료소	노숙인무료진료소 (사랑그루터기)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14(전포동)	441-5662	
응급잠자리	응급잠자리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14(전포동)	441-5662	응급보호
자활시설	소망관	동구 고관로 46(초량동)	464-4602	응급보호
	화평생활관	영도구 태종로 50번길 15(대교1가)	412-0191	응급보호
	금정희망의집	금정구 서부로 40(서동)	526-1033	응급보호
	삼복의집	사상구 가야대로 187(주례동)	312-0675	응급보호
여성 일시 보호소	응급잠자리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14(전포동)	441-5662	응급보호
	마리아마을	사하구 장림로 198(장림동)	263-3902	응급보호
재활·요양 시설	인성원	양산시 하북면 양산대로 1870-63	(055)375-1797	응급보호
	오순절평화의마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453	(055)352-4241	응급보호
	마리아마을	사하구 장림로 198(장림동)	263-3902	응급보호
쪽방 상담소	동구쪽방상담소	동구 고관로 67(수정동)	462-2017	
	부산진구쪽방상담소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3(전포동)	807-5663	

기타시설

알코올 상담센터	부산알코올상담센터	남구 용소로 46번길 4 우양빌딩 2 (대연동)	246-7574 246-7570	
	해운대구알코올상담센터	해운대구 반송로 853(반송동)	749-6992~3	해운대구직영
정신보건센터	광역정신보건센터	동구 중앙대로 233 해정빌딩 7층(초량동)	242-2575	